

대학생의 성 지식, 성 태도, 및 자기통제력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인오¹ · 김신희² · 이정란³

¹원광보건대학교, 부교수 · ²군산간호대학교, 조교수 · ³원광보건대학교, 부교수

Factors affecting on Sex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In Oh, Moon¹ · Shin Hee, Kim² · Jeong Ran, Lee³

¹*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²*Kunsan College of Nursing, Assistant Professor*

³*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4권 제3호 2020년 9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4, No. 3, Sept. 2020

대학생의 성 지식, 성 태도, 및 자기통제력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인오¹ · 김신희² · 이정란³

¹원광보건대학교, 부교수 · ²군산간호대학교, 조교수 · ³원광보건대학교, 부교수

Factors affecting on Sex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In Oh, Moon¹ · Shin Hee, Kim² · Jeong Ran, Lee³

¹*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²*Kunsan College of Nursing, Assistant Professor*

³*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on Sex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Method : The data collection was progressed through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to 422 college students in J.do.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WIN 23.0 program. Resul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r = 0.22$, $p < .001$), sexual knowledge and sexual behavior($r = 0.15$, $p = .002$). sexual attitude and self control was negative correlation($r = 0.30$, $p < .001$). Factors affecting the sex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gender($\beta = 0.45$), sexual attitude($\beta = 0.25$), smoking($\beta = 0.18$), heterosexuality($\beta = 0.16$), and sexual knowledge ($\beta = 0.09$). The explanatory power was 42.4%. Conclusion: The findings confirmed that for the sound sexual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t is needed to have the program that positive perception of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And also to have a sex education program that can promote self-respect, a major factor in the developmental change of sexual behavior.

Key words : Sex, Knowledge, Attitude, Sexual behaviors, Self-control

I. 서론

최근 급변하는 산업화, 정보화로 성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대학생들은 교육기간 연장으로 결혼 연령이 늦춰짐에 따라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자유스러운 성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폭력, 원치 않는 임신, 낙태, AIDS 등 부정적인 성 문제 현상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1]. 이들은 입시라는 관문 통과를 위해 성적 욕구를 억제하도록 강요받고, 대학에 입학한 후 성인으로서 해방감과 이로 인한 자유스러운 이성 교제를 허용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성에 대한 태도에 혼란을 갖게 된다. 이렇듯 성 태도는 성행위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체계화된 일관적인 사고 및 감정과 행동의 양식이기 때문에[2] 성 태도를 어떻게 인식하나에 따라 성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성 태도와 신념을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3].

대학생은 성인기 초기로 성적 접촉과 같은 신체적 측면의 영향요인이 증가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성매개 감염과 원치 않는 임신 등의 증가로 고위험 집단이다[4]. 대학생은 Erickson의 발달단계 중 청소년기에 성인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기인 청년후기에 해당하며 신체적인 성적 변화와 성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대학생 시절의 생활양식과 건강행태는 이후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나아가 성인기의 즉 결혼기의 불임률 증가, 생식기 질환 증가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중요한 시기이다[5]. 따라서 대학생 시기의 성적 발달에 관련된 지식인 성 지식의 정도는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6] 대학생들에게 신체 변화에 대한 지식을 미리 습득하여 심리 적응에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위험한 성행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즉 성 지식은 성 태도 더 나아가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 최근 대학생의 성 경험 실태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38.1%가 성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임신 경험은 11.6%이었으며, 임신 중절 경험 또한 94.4%라고 하였다[7]. 이러한 문제들은 대학생들의 평생 교육

기회와 고용기회를 빼앗아 성인기의 과업인 결혼생활 까지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성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높은 반면 교육 경험은 낮고[8]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적은 실정으로 대학생들의 성 관련 지식, 태도에 대한 성 정체성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9]. 따라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성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행위에 대하여 더욱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대학생들에게 있어 정확하고 올바른 성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10].

자기통제력이란 유혹에 저항하며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과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욕구 충족을 지연할 수 있고 분별력이 있으며 조심성과 자기표현에 절제력이 있어 다른 사람 욕구에 민감하고 배려하는 경향이 있다[11].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위험 성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2]가 있으나 청소년기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에 있어 자기통제력과 성행동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성 태도, 성 지식, 성 행동의 실태와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13,14] 성 지식과 성 태도와 자기통제력의 정도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후 건강한 성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전문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지식, 성 태도 및 자기통제력, 성행동을 살펴보고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J도 I시 소재 A대학의 대학생 422명을 편의 표본추출 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표본의 수는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검정력($1-\beta$)=.95, 유의수준(α)=.05, 효과 크기(d)=.15로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 요구되는 표본 수는 208명이었으며 연구 주제에 대한 설문내용이 성(性)과 관련된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탈락률을 고려하여 450명으로 설정하였다.

3. 연구도구

1) 성 지식

성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호선민[10]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33문항으로 생식기 관련 7문항, 임신 및 출산 관련 8문항, 성 건강 관련 10문항, 성행위 관련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정답이면 1점, 오답이면 0점을 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 값이 제시되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Kuder Richardson-20값은 .85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성 지식 .57, 임신 및 출산 .59, 성건강 .74, 성행위 .73으로 나타났다.

2) 성 태도

성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호선민[10]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5점 척도의 총 42문항으로 육체적 성관계에 대한 쾌락·유희적 성 11문항, 혼전순결 7문항, 결혼관 7문항, 성 허용성 6문항, 동성애 5문항, 낙태 6문항 등 5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항목을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 태도를 의미한다. 원도구의 문항별 신뢰도 결과 .81에서 .93까지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쾌락·유희적 성 .83, 혼전순결

.81, 결혼관 .61, 성 허용성 .77, 동성애 .95, 낙태 .75로 나타났다.

3)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 Grasmick 등[15]이 개발한 자기통제력 척도를 하창순[11]이 한국판 자기통제력 척도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의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충동성, 단순과제선호, 모험추구, 신체활동선호, 자기중심, 화기질의 6개 하위요인을 각각 4문항씩 포함하고,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74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56에서 .81을 나타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3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충동성 .62, 단순과제 .73, 모험추구 .84, 신체활동 .77, 자기중심 .78, 화기질 .72로 나타났다.

4) 성행동

성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Zuckerman[16]이 개발하고 이관기[17]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 척도의 총 14문항이며, 적극적 성행동 5문항, 탐색적 성행동 6문항, 상상적 성행동 3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869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60에서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0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적극적 성행동 .88, 탐색적 성행동 .69, 상상적 성행동 .62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본 조사를 위해 각 학과를 직접 방문하여 학과장의 협조하에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설문 중간에 원치 않은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문지가 기호화됨을 설명하였다. 450부 중 중도탈락하거나

회수된 후 부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8부를 제외하고 422명(93.8%)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제 변수의 정도는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 성 태도, 자기통제력, 성행동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로 사후검증하였다.
- 성행동과 제 변수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성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도구의 신뢰도는 KR-20과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자가 31.8%(134명)이고, 연령은 20~24세가 54%(227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20.9세였다.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1, 2학년이 각각 45%(190명)와 39.3%(166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4학년은 2.4%(10명)였다. 보건계열은 58.5%(247명), 비 보건계열은 41.5%(175명)이었고,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47.6%(201명), 자택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66.3%(276명)로 가장 많았다. 한 달 용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64.1%(270명)이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학생은 10.9%(46명)이었으며, 한 달에 1회 이상 마시는 경우는 62.8%(265명)이었고, 현재 흡연을 하는 학생이 17.8%(75명)이었다.

현재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학생이 40.0%(169명)이었으며, 이성 교제 기간은 평균 14.6개월이었다. 학

교나 교외에서 성 관련 특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4.5%(61명)에 불과하였으며, 앞으로 성 관련 교육을 할 경우 참여할 의도가 있는 대상자는 33.6%(142명)이었다. 성 관련 교육 시 희망하는 강좌 내용은 피임방법이 52.6%(22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29.1%(123명), 임신과 출산 26.3%(111명), 올바른 이성 교제 25.4(107명), 남녀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24.9%(105명), 배란과 월경 20.1%(85명), 자위행위 10.2%(43명), 성충동 해소법 6.6%(28명) 순이었다 (Table 1).

2. 대상자의 성 지식, 성 태도, 자기통제력 및 성행동

대상자의 성 지식을 33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 18.44점이었으며, 하부 영역으로 생식기 관련 점수는 4.43점(7점 만점),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식 점수는 3.88점(8점 만점), 성 건강 관련 점수는 5.25점(10점 만점), 성 행위 관련 지식 점수는 4.88점(9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성 태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성 태도 42문항 전체에 대한 평균 점수는 2.91점이었다.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낙태에 대한 태도 점수가 3.0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동성애 3.04점, 육체적 성관계에 대한 쾌락·유희적 성 태도 2.98점,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 2.93점, 결혼관과 성 허용성에 대한 태도가 각각 2.70점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을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24문항 전체에 대한 평균 점수는 3.24점이었다. 하부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3.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화를 잘 내는 기질 3.49점, 모험 추구적 성향 3.39점, 충동성 3.23점, 단순과제 선호 2.89점, 신체활동 선호 2.79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행동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14문항 전체의 평균 점수는 1.94점이다. 이를 하부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탐색적 성행동이 2.0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적극적 성행동 1.93점, 상상적 성행동 1.78점 순이었다(Table 2).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4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134	31.8	20.9±4.4
	Female	288	68.2	
Age(yr)	≤19	171	40.7	
	20~24	227	54.0	
	≥25	22	5.2	
Grade	1	190	45.0	
	2	166	39.3	
	3	56	13.3	
	4	10	2.4	
Alignment	Health department	247	58.5	
	None health department	175	41.5	
Religion	No	221	52.4	
	Yes	201	47.6	
Living status	Live with parents	276	66.3	
	dormitory	103	24.8	
	rented room	37	8.9	
Allowance(per monthly)	<200,000	151	35.9	
	≥200,000	270	64.1	
Drinking(per monthly)	None	46	10.9	
	<1	111	26.3	
	≥1	265	62.8	
Smoking	No	346	82.2	
	Yes	75	17.8	
Dating relationship	No	253	60.0	
	Yes	169	40.0	
Duration of dating relationship(yr)	<1	81	51.3	14.6±15.4
	≥1	77	48.7	
Experience of sexual education	No	359	85.5	
	Yes	61	14.5	
Participation intention on sexual education	Unknown	190	45.0	
	No	90	21.3	
	Yes	142	33.6	
Desired rate on contents of sexual education	Contraception	222	52.6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123	29.1	
	pregnancy and delivery	111	26.3	
	dating relationship	107	25.4	
	Male and female characteristics	105	24.9	
	Menstruation and ovulation	85	20.1	
	masturbate	43	10.2	
	solution of sexual impulse	28	6.6	

Table 2. Degree of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Self-control and Sexual behaviors

(N = 422)

	Min.	Max.	M	SD
Sexual knowledge	0.00	30.00	18.44	6.14
genitals	0.00	7.00	4.43	1.53
pregnant and delivery	0.00	7.00	3.88	1.58
sexual health	0.00	10.00	5.25	2.57
sexual behaviors	0.00	8.00	4.88	2.14
Attitude	1.36	4.26	2.91	0.42
hedonism	1.00	5.00	2.98	0.62
chastity before marriage	1.00	5.00	2.93	0.72
view of marriage	1.14	4.29	2.70	0.55
sexual permissive	1.00	5.00	2.70	0.69
homosexuality	1.00	5.00	3.04	1.07
abortion	1.00	5.00	3.07	0.65
Self-control	1.54	4.75	3.24	0.42
impulsivity	1.25	5.00	3.23	0.64
seeking simply job	1.00	5.00	2.89	0.71
seeking adventure	1.00	5.00	3.39	0.78
seeking physical activity	1.00	5.00	2.79	0.72
self-centeredness	1.00	5.00	3.66	0.68
tendency of anger	1.00	5.00	3.49	0.74
Sexual behaviors	1.00	5.00	1.94	0.85
imaginary sexual Behavior	1.00	5.00	1.78	1.03
exploratory sex Behavior	1.00	5.00	2.03	0.80
actively sexual Behavior	1.00	5.00	1.93	1.1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 성 태도, 자기통제력 및 성행동의 차이

성 지식은 연령, 학년, 전공계열, 용돈, 이성 교제 여부 및 기간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19세 이하 16.50점, 20~24세 19.34점, 25세 이상 23.77점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성 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1.16$, $p<.001$). 학년의 경우는 4학년 25.40점, 3학년 20.55점, 2학년 18.53점, 1학년 17.38점으로 성 지식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검정 결과 3학년과 4학년이 1학년보다 높았으며, 4학년이 2학년보다 높아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87$, $p<.001$). 전공계열별로는 보건계열이 19.52점으로 비 보건계열 16.92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4.38$, $p<.001$), 한 달 용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19.24점)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17.06점)보다 높았다($t=-3.54$, $p<.001$). 또한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대상자(19.42점)가 하지 않는 대상자(17.79점)보다 높았으며($t=-2.74$, $p=.006$), 이성 교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20.55점)가 1년 미만인 경우(18.58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13$, $p=.034$).

성 태도는 성별이나 전공계열, 이성 교제 여부, 이성 교제 기간, 성 관련 특강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이 20~24세가 2.96점으로 19세 이하 2.84점보다 유의하게 높아 성 태도가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F=4.04$, $p=.018$), 종교가 없는 경우(2.96점)가 있는 경우(2.85점)보다 더 높았다($t=2.56$, $p=.011$). 또한 자택에 거주하

는 학생(2.87점)보다 자취나 하숙을 하는 경우(2.99점) 성 태도가 더 개방적이었으며($F=3.53, p=.030$), 한 달 용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2.97점)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2.80점)보다 더 개방적이었다($t=-3.90, p<.001$). 음주를 전혀 하지 않거나(2.70점), 월 1회 미만 마시는 경우(2.82점)보다 월 1회 이상 마시는 경우(2.98점)가 더 개방적이었고($F=12.76, p<.001$), 비흡연자(2.87점)보다 흡연자(3.10점)가 성 태도가 더 개방적이었다($t=4.44, p<.001$).

자기통제력은 성별이나 연령, 학년, 전공계열, 종교, 거주형태, 한 달 용돈, 이성 교제 여부에 음주 횟수, 흡연 여부, 성 관련 특강 경험 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다만 이성 교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3.33점)가 1년 미만인 경우(3.1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2.63, p=.010$).

성행동은 학년이나 전공계열, 종교 유무, 이성 교제 기간, 성 관련 특강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에서 남자(2.57점)가 여자(1.65점)보다 성행동을 더 많이 하였고($t=10.04, p<.001$), 연령별로는 19세 이하(1.78점)보다 20~24세(2.03점)와 25세 이상(2.19점)에서 더 많았다($F=5.66, p=.004$).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학생(1.85점)보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1.99점) 성행동을 더 많이 하였고($F=5.27, p=.006$), 한 달 용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2.04점)가 20만원 미만인 경우(1.77점)보다($t=-3.24, p=.001$), 그리고 현재 이성 교제를 하는 사람

(2.05점)이 하지 않는 사람(1.87점)보다 성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t=-2.12, p=.035$). 또한 음주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경우(2.09점)가 전혀 마시지 않거나(1.70점) 또는 월 1회 미만 마시는 경우(1.70점)보다($F=10.61, p<.001$), 그리고 현재 흡연자(2.70점)가 비흡연자(1.78점)보다 성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7.33, p<.001$)(Table 3).

4. 대상자의 성 지식, 성 태도, 자기통제력, 성행동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자기통제력 및 성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 지식과 성 태도($r=0.22, p<.001$), 성행동($r=0.15, p=.002$)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성 태도는 자기통제력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r=-0.30, p<.001$), 성행동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36, p<.001$). 또한 성행동은 자기통제력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13, p=.010$).

5. 연구대상자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상자의 성별, 연령, 전공계열, 용돈 수준, 이성 교제 여부, 흡연 여부, 음주 횟수, 거주형태, 성 지식, 성 태도, 자기통제력을 변수로 포함하여 단계 선택 방

Table 3. Difference of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Self-control and Sexual behaviors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4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xual knowledge		Attitude		Self-control		Sexual behaviors	
		M±SD		M±SD		M±SD		M±SD	
Gender	Males	18.40	5.92	2.96	0.46	3.22	0.46	2.57	0.98
	Female	18.47	6.25	2.88	0.40	3.25	0.41	1.65	0.60
	t(p)	-0.11(.914)		1.89(.059)		-0.66(.507)		10.04(<.001)	
Age(yr)	≤19 ^a	16.50	6.13	2.84	0.41	3.25	0.40	1.78	0.73
	20~24 ^b	19.34	5.81	2.96	0.42	3.23	0.44	2.03	0.89
	≥25 ^c	23.77	4.03	2.84	0.39	3.41	0.38	2.19	0.95
	F(p)	21.16(<.001)		4.04(.018)		1.85(.159)		5.66(.004)	
	Scheffe	a<b<c		a<b				a<b,c	

Table 3. Difference of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Self-control and Sexual behaviors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계속)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xual knowledge		Attitude		Self-control		Sexual behaviors	
		M±SD		M±SD		M±SD		M±SD	
Grade	1 ^a	17.38	6.04	2.84	0.40	3.24	0.44	1.90	0.85
	2 ^b	18.53	5.73	2.94	0.42	3.26	0.40	1.98	0.89
	3 ^c	20.55	6.83	3.02	0.44	3.18	0.42	2.01	0.79
	4 ^d	25.40	2.07	2.93	0.46	3.43	0.48	1.67	0.57
	F(p)	8.87(<.001)		3.10(.027)		1.19(.313)		0.73(.533)	
	Scheffe	a<c,d, b<d		a<c					
Alignment	Health dep.	19.52	5.83	2.93	0.41	3.25	0.43	1.91	0.83
	None health dep.	16.92	6.27	2.87	0.42	3.24	0.42	1.99	0.88
	t(p)	4.38(<.001)		1.49(.138)		0.25(.801)		-0.90(.368)	
Religion	No	17.97	6.23	2.96	0.39	3.25	0.39	1.94	0.84
	Yes	18.96	6.01	2.85	0.44	3.23	0.46	1.94	0.87
	t(p)	-1.65(.099)		2.56(.011)		0.50(.615)		0.02(.982)	
Living status	live with parents ^a	18.17	6.07	2.87	0.41	.411	.025	1.85	0.80
	rented room ^b	19.50	6.04	2.99	0.41	.422	.042	2.16	0.92
	dormitory ^c	17.73	6.93	2.97	0.46	.522	.086	1.99	0.93
	F(p)	2.03(.132)		3.53(.030)		0.17(.844)		5.27(.006)	
	Scheffe			a<c				a<c	
Allowance (per monthly)	<200,000	17.06	6.02	2.80	0.44	3.23	0.39	1.77	0.78
	≥200,000	19.24	6.08	2.97	0.40	3.25	0.44	2.04	0.88
	t(p)	-3.54(<.001)		-3.9(<.001)		-0.60(.548)		-3.24(.001)	
Drinking (per monthly)	None ^a	18.89	7.18	2.70	0.51	3.33	0.36	1.70	0.80
	<1 ^b	17.87	5.87	2.82	0.40	3.29	0.42	1.70	0.64
	≥1 ^c	18.60	6.06	2.98	0.39	3.21	0.43	2.09	0.91
	F(p)	0.69(.503)		12.76(<.001)		2.70(.068)		10.61(<.001)	
	Scheffe			a,b<c				a,b<c	
Smoking	Yes	18.43	5.87	3.10	0.40	3.24	0.41	2.70	1.03
	No	18.44	6.21	2.87	0.41	3.24	0.43	1.78	0.71
	t(p)	-0.02(.987)		4.44(<.001)		-0.15(.879)		7.33(<.001)	
Dating relationship	No	17.79	6.31	2.91	0.42	3.23	0.44	1.87	0.89
	Yes	19.42	5.76	2.91	0.41	3.26	0.40	2.05	0.79
	t(p)	-2.74(.006)		-0.02(.987)		-0.61(.540)		-2.12(.035)	
Duration of dating relationship(yr)	<1	18.58	5.98	2.93	0.39	3.17	0.38	2.18	0.85
	≥1	20.55	5.57	2.92	0.43	3.33	0.39	2.00	0.71
	t(p)	-2.13(.034)		0.26(.794)		-2.63(.010)		1.47(.144)	
Experience of sexual education	Yes	17.64	5.10	2.90	0.41	3.26	0.47	1.87	0.92
	No	18.57	6.31	2.90	0.42	3.24	0.42	1.95	0.84
	t(p)	-1.09(.275)		-0.02(.986)		0.30(.764)		-0.73(.468)	

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다. Durbin-Watson 지수가 1.93이므로 종속변수는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VIF(분산 팽창 요인) 지수를 이용하였다. 독립변수 간 VIF 지수는 1.035~1.174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beta=0.45$), 성 태도($\beta=0.25$), 흡연($\beta=0.18$), 이성 교제($\beta=0.16$), 성 지식($\beta=0.09$)의 순으로 영향을 주며, 전체 설명력은 42.4%였다. 성별은 남자에 비해 여자($B=-0.80$)가, 현재 흡연자에 비해 비흡연자($B=-0.41$)가, 그리고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월 1회 이하 하는 경우($B=-0.14$)에 성행동을 더 적게 하였다. 반면에 성 태도가 개방적일수록($B=0.50$), 이성 교제를 하는 경우($B=0.27$)에, 그리고 성 지식이 높을수록($B=0.01$) 성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IV. 논 의

본 연구는 일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대학생의 올바른 성행동을 위한 교육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학생들의 성 지식 점수는 33점 만점 18.44점으로 중간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선행 연구결과[18,19]와 유사하였다.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개방되고 노출된 정보의 환경과는 달리 성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신과 출산, 생식기에 대한 성 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 보건계열 학생들 뿐 아니라 보건계열 대학생들 또한 성 지식에 대한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계열에 관계없이 성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료된다.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대학생의 성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성적 갈등 경험 속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여 이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20]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의 요구에

Table 4. Correlation of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Self-control, Sexual behavior

(N = 422)

	Sexual knowledge	Attitude	Self-control
Sexual knowledge	1		
Sexual attitude	0.22(<.001)	1	
Self-regulation	0.01(.857)	-0.30(<.001)	1
Sexual behavior	0.15(.002)	0.36(<.001)	-0.13(.010)

Table 5. Influence factor of sexual behaviors

(N = 422)

	B	β	t	p	R2	Adjusted R2	F(p)
Contents	1.07		4.14	<.001			
Gender(Female)	-0.80	-0.45	-11.17	<.001			
Sexual attitude	0.50	0.25	6.38	<.001			
Smoking(yes)	-0.41	-0.18	-4.55	<.001	.433	.424	51.47 (<.001)
Dating relationship(yes)	0.27	0.16	4.15	<.001			
Sexual knowledge	0.01	0.09	2.21	.027			
Drinking(yes)	-0.14	-0.08	-1.99	.047			

Durbin-Watson = 1.93

Dummy variables : gender-male, smoking-none, dating relationship-No, drinking-None

맞는 맞춤형 성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성 태도 점수는 5점 만점 2.91점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낙태 관련 문항에서 3.07점으로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대학생이 성 경험을 통해 임신을 한 경우 94.4%가 수술 경험을 했다는 연구결과[21]가 본 연구를 뒷받침한다. 성 태도를 결정짓는 것은 성인이 되기 전의 경험과 교육을 통한 성 지식[22]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임신중절 수술은 여성의 이후 생식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성교육뿐 아니라 이후 생식건강 관련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통제력 점수는 5점 만점 3.24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자기통제력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결과[23,24]와 유사하였다.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즉흥적 또는 충동적인 행동을 해서 사회적으로 일탈행동과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러한 행동을 자제하고 좀 더 사회적으로 허용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25].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들은 성 지식과 성 태도가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이면서 자기통제력은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행동 점수는 5점 만점 평균 1.94점으로 선행연구[1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1~2학년의 비율이 84.8%이었으며 선행연구들[18,26]은 3~4학년의 대상자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는 연령에 따른 올바른 성행동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이나 학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는 차이가 없음으로 나타나 저학년 즉 20세 미만의 학생을 대상으로 성행동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 지식, 성 태도, 자기통제력, 성행동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 대학생의 성행동은 성 지식($p<.002$), 성 태도($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성행동과 자기통제력($p<.001$)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지식이

높으면 성행동이 증가한다는 기존 선행연구들[13,27]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과거에 비해 SNS와 인터넷 등으로 성에 대한 검색어가 빈번히 등장되고 이로 인한 성에 대한 흥미를 추구하거나 사이버 섹스와 같은 성행동이 증가되면서 성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16]. 그러나 자기통제력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행동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28]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처럼 성행동은 성별에 차이가 있음으로 나타나 최근 성적 자유를 허용하는 관행이 성별의 차이가 거의 유사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남성이 여성보다 성에 대해 보다 더 허용적이기에 남학생들의 성행동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적 특성 중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성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비흡연보다 흡연자가, 이성 교제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하는 경우, 성지식이 높고 음주를 하는 경우 성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성별과 성 태도가 성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42.4%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행동에 대한 성별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 및 환경적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성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기주장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남학생 역시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표현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통해 성행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을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대학생들은 급변하는 산업화, 정보화로 성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의 범람과 교육기간 연장이라는 환경적 변화에 따라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과 자유스러운 성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학생의 성행동에 취약해질 수 있

으며 더 나아가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성행동에 대한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성행동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행동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남자인 경우와 성 태도가 높을수록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지식과 성 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올바르고 실질적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성 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 대학의 대학생을 임의표본 추출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기에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을 포함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올바른 성지식, 성태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Kim JS, Kim GH. A study ab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sexual permissiveness for male student of middle school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05;14(4):169-194.
2. Kim NH, Park YJ, Jung HS.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2015;7(2):14-42.
3. Jo MJ, Jun WH.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attitude, other-compassion and attitudes toward unwed mothe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9;19(3):94-103. <https://doi.org/10.5392/JKCA.2019.19.05.094>
4. Finer LB, Henshaw SK. Disparities in rates of unintended pregnancy in the united states, 1994 and 2001.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2006; 38(2):90-96. <http://dx.doi.org.oca.korea.ac.kr/10.1363/3809006>
5. Hwang HG, Shin JK, Choi CH, Yoo WK.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and factors on its influences. *Kor. J. Oriental Preventive Medical Society*. 2007;11(2):141-157.
6. Kim HG, Heo EJ.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maturity variables and sexual attitude in university stud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03;10(4):403-422.
7. Shin KL, Park HJ, Bae KE, Cha CY. Sexual behavior, health risk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0; 22(6):624-633.
8. Jeon GS.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ge and attitude[*master's thesis*]. Seoul: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p.1-104.
9. Yeom GJ, Kim IO. A study about research of needs for development of sex education program on university entrants. *Korean Parent Child Health Journal*. 2018;21(1):11-19.
10. Ho SM.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s of the university students[*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2009. p.1-69.
11. Ha CS.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the self-control scale[*dissertation*]. Seoul: Dankook University; 2004, p.1-94.
12. Nam HM, Ok SW.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self-control and friends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problem behavio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001;39(7):37-58.
13. Kim MO. Factors that influencing sexual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14(8):3876-3886. <http://dx.doi.org/10.5762/KAIS.2013.14.8.3876>
14. Lee HS, Jeong BH, Lee YH, Seong WS, Ha JO, Lee

- GY, et al. A study on the level of sex educati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allowa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21(3):231-252.
 15. Grasmick HG. Tittle CR. Bursik RJ. Arnerklev BJ.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993;30(1):5-29.
 16. Zuckerman, M. The sensation seeking motive. In Maher, B. A. (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Academic Press: New York; 1974. p.79-148.
 17. Lee GK.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nd experienced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 of adolescents[master's thesis]. Jeonju: Woosuk University; 2002, p.1-46.
 18. Kim NH, Park YJ, Jung HS.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2015;7(2):17-42.
 19. Choi MS, Ha NS.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4;10(4) :318-330.
 20. Kim JH, Kim KS.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on their sexu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08;13(1):123-138.
 21. Shin KR, Park HJ, Hong CM.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from Korea.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0;22(4):448-456.
 22. Hwang IM. A study of Korean students' sexual knowledge, self-regulation, attitude, and their perception of unwed pregnancy[master's thesis]. Daejeon: Eulji University, p.1-62.
 23. Kim SY. The influence of self-control and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8;12(1):253-262. <https://doi.org/10.21184/jkeia.2018.1.12.1.253>
 24. Kim MS. Son SK. Relationships between self-control and addictive mobile phone use by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 15(11):6719-6727. <https://doi.org/10.5762/KAIS.2014.15.11.6719>
 25. Kim HY.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sexual deviant behavior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ttachment to parents and risky sexual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master's thesis]. Seoul: Dankook University; 2013. p. 1-50.
 26. Seo YS. Kwan YC. A path analysis of variables influencing convergence-based safer sexual behavior of early adul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14(7):299-307. <http://dx.doi.org/10.14400/jdc.2016.14.7.299>.
 27. Kim MS. Factors affecting the sexual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2010;10(5):252-258. <https://doi.org/10.5392/JKCA.2010.10.5.252>
 28. Son AR. Risk of adolescent sexual behaviors by smoking and alcohol us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002;28(4):334-342.
-